불교의 생각법, 비즈니스에 활용

日, 매거진 '에이시스' 불교개념 비즈니스 도입 소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적 가치관을 비즈니스 교육에 넣은 영상 콘텐츠의 소개. 사진출처=톳판인쇄

불교의 가치관이나 교리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불교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콘텐츠가 등장해 화제다. 1월 6일, 일본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거진 '에이시스'는 일본의 대형 인쇄회사가 제작한 '비즈니스 장면을 살리는 불교의 생각'이란 콘텐츠를 단독 소개했다.

도쿄에 소재한 대형 인쇄회사인 '톳판인쇄'는 2019년, 종교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현대사찰운영을 연구하는 '좋은 절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대표이사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톳판인쇄는 연구회와의 제휴를 통해 "불교의 다양한 지식을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로 정리하고,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하여 차세대 인재개발 시책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문을 맡은 우카이 스님은 "연구회 측은 이미 오래부터 불교계와 현대사회의 접점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실제 비즈니스 교양으로써의 불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책으로 출판한바 있다"고 말했다.

톳판인쇄와 연구회는 그간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1월부터 '비지니스 장면을 살리는 불교의 생각'이라는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본 동영상 콘텐츠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의 개념을 비즈니스 현장에 도입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동기와 사업에 필요한 불교윤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의미, 기업 가치, 자신의 본연의 자세 등의 개념을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에 혼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개인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와 고객의 측면에서도 불교적인 생각을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주목받는지 소개한 후, 불교에서 말하는 노동과 일하는 의미를 일러줌으로써 개인의 비즈니스 윤리를 교육한다. 이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 불교의 이타심을 설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 1시간 분량의 5챕터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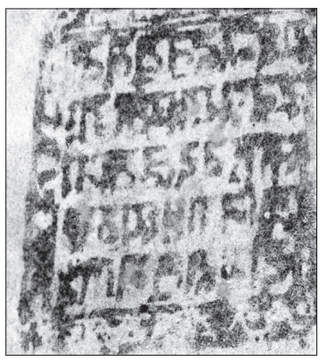
이번 콘텐츠는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 영상이라는 점에서, 바쁜 업무시간 속의 틈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챕터의 요점을 짧게 분할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한 교육내용을 상기하기 위한 퀴즈형식의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등, 즐기면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톳판인쇄 측은 "본 동영상 콘텐츠는 자사가 2017년에 설치 한 인재 개발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연구회 측과의 협업과 감수를 통해 불교의 개념을 차세대 인재 개발 시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톳판인쇄는 먼저 자사 내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선행공개 했으며, 현재 일반에 시판에 나섰다. 또한 선행공개를 통해 모인 직원들의 반응과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보완된 후속 콘텐츠 제작의 검토와 불교의 개념을 도입한 동영상 콘텐츠 확충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둔황석굴 뒤집힌 梵語의 비밀

범어 몰랐던 석굴 건설 인부 실수로 밝혀져



중국 둔황 석굴 속 뒤집힌 범어의 비밀이 밝혀져 화제다. 지난 1월 5일 불교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중국 둔황 석굴 속 뒤집힌 범어의 비밀을 보도했다.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고고학 · 미술사 보존을 위한 영상, 탐사 단체(ISAAC)가 중국 둔황 석굴 연구소, 영국 도서관과 협력해 700여 년 전 조성된 둔황석굴의 비밀 중 하나를 풀어냈다.

원(元)나라 시대에 조성된 465호 석굴에서는 다른 석굴들과 달리 뒤집힌 채 쓰여진 범어 문헌이 불상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번 결과는 사본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사본학이란 고문헌에 관해서 그 서체를 비롯하여 문헌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 등에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SSAC 책임자 하이다 량(Haida Liang) 교수는 "뒤집힌 범어는 수년간 큰 논쟁거리였지만 과학 분석을 통해 기존 추정 연대보다 더 정확한 연대를 밝혀냈다. 해당 석굴을 조성할 때, 혹은 복장과 점안식의 일환으로 진언이나 다라니를 종이에 인쇄해 불상이나 벽면에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된 뒤집어진 범어는 465호 석굴의 불상의 발 밑에서 발견된 것으로 내용은 '연기법송'의 첫구절인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생긴다(諸法從緣生)'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연기법송은 불복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진언"이라며 현재의 추정에 대한 강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량 교수는 "석굴들의 수와 봉안된 불상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일반 인부들이 이를 붙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범어를 모르는 건설인부들이 잘못 된지 모른 채로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석굴에 있는 문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 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밀을 밝혔다. 또한 뒤집힌 범어는 동시대에 건립된 다른 석굴에서 발견된 문헌들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국태민안 기원하는 천년의 발원

1월 8일, 교토의 토지(東寺)서 9세기 시작된 기원 법회 봉행


수법을 봉행하기 위해 관정원으로 향하는 법주 죠에스님.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천년 간 이어온 기원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교토의 토지(東寺)에서는 9세기 중반 시작된 기원 법회 '고시치니치 미시호(後七日御修法)'(이하 '미시호')가 봉행됐다. 진언종의 고승들이 모여 장엄하게 입재를 알린 법회의 모습을 '교토신문',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미시호는 835년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대사가 시작한 법회로, 역사적으로는 궁중에서 밀교의 수법이 봉행되는 진언원(眞言院)에서 진행되어 왔다. 매년 1월 8일부터 7일간 봉행 된다는 점에서 '고시치니치(後七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시호에는 진언종 18본산의 종정들과 각 본산에서 15인의 고승들이 선발되어 봉행되며 매일 3회, 총 21차례 기도를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니 주된 내용으로는 국태민안과 그해의 자연재해가 없길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천황이 입었던 옷을 궁에서 전달 받아 기도를 올리고 다시 그 옷을 헌상하여 천황이 입음으로써 기도가 회향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대기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으며 궁정에서의 불교법회가 폐지, 십여 년 간 일시 중지 되었으나 1883년 토지의 관정원(灌頂院)에서 다시 부활하여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도를 이끄는 법주는 기도기간 동안 종조 쿠카이가 생전에 사용했던 법구들을 사용하며, 진언종에서는 이 미시호에 선발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한다.

올해의 미시호는 진언종 지산(智山)파의 종정인 후세 죠에 스님이 법주를 맡고, 총 130여인의 인원이 동원됐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법회에 참여하는 스님들과 종무원 전원이 PCR검사를 받았으며 입재일 전날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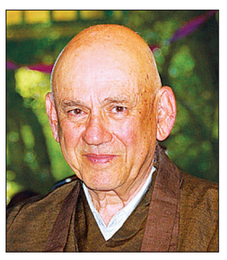
8일 정오, 궁내청 교토 사무소의 칙사로부터 천황의 옷을 전달받은 토지는 곧 미시호를 봉행했다. 금줄이 쳐진 길을 따라 법주인 죠에 스님을 선두로 15인의 스님들이 엄숙하게 관정원으로 향했다. 토지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입재를 위해 걸어가는 고승들을 친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입재행렬을 보기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불자는 "매년 나라의 평안을 위해 큰스님들이 일심으로 기원하시는 모습에 감동했다. 새해에는 꼭 이 기원에 힘입어 코로나 19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불교 개척자, 와이츠만 스님 입적

세수 91세, 법납 53세. 암 투병 중 입적



미국불교에서 존경받는 원로스님이 입적했다. 지난 1월 11일 온라인 불교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미국 선불교의 개척자인 소준 멜 와이츠만(Sojun Mel Weitsman)스님<사진>이 지난 1월 7일 입적했다고 보도했다.

소준 스님이 주석하던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조동종 선 센터는 소준 스님이 오랜 암 투병 끝에 1월 7일 자택에서 세수 91세, 법납 53세로 입적했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엘리자베스 호로위츠와 아들 다니엘이 있다.

192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소준 스님은 젊은 시절 추상화 화가와 교사로 일하였으며, 미국에 불교를 전한 1세대 아시아 스승인 스즈키 슌류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1967년 슌류 스님과 함께 버클리에 선 센터를 개원했으며, 익년 출가하여 슌류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이후 꾸준한 수행정진으로 1984년 일본에서 인가를 받아 선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미국인 선사로는 최초의 주지로 버클리 선 센터에 주석했다.

버클리 선 센터(BZC)의 주지인 호잔 앨런 세노크 스님은 스님의 입적에 대해 "소준 스님의 명료하고 꾸준한 지도력으로 버클리 선 센터는 미(美)불자들의 법등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소준 스님은 2020년 암 투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버클리 선센터의 모든 소임에서 물러나 치료에 집중 했던 것으로 전한다. 스님은 살아생전 30여명 이상의 선객을 인가했고, 200여명 이상의 재가법사들을 양성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버클리 선 센터는 미국 조동종의 중심지로 미국과 일본 양 불교계의 존경을 받아왔다.

김민재 객원기자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